

[12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갈림길에서

교회행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려면, 무언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랫동안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둘째, 공동체에 덕이 되는 일인가?
 -셋째, 나 자신에게 유익한가?

1.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1월

2일	세례문답식, 신임투표
3일	세례식
10일	성찬식
13일	마하나임, 트리니티 찬양예배 추수감사주일
17일	2기 더가족세미나 시작

12월

5-7일	교회 김장
8일	더가족세미나 수료
15일	여전도회 총회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경배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선교

이윤주 선교사

일본

- 3명의 몽골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 (후르츠, 엔토멘토, 함바로).
-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인 응형제, 일본인 오노형제, 하바라 형제를 위해.
- 자녀 보라, 실라를 위해 (보라는 10월 제대 예정이고 실라는 오른쪽 무릎 인대 파열에서 회복중).

소식

한 문장 큰 울림

1. 수요기도회

금주 수요기도회는 엘여성 합창단과 함께하는 찬양예배로 드려집니다.

2. 2025년 예산 공동의회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는 12월 18일 수요일 수요 말씀과 기도 후에 진행됩니다. (회원: 2024년 9월 18일 이전 등록한 세례교인)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김장

금주 12월 5(목)-7일(토)까지 교회 김장을 실시합니다.(안수집사 필참)

4. 굿월센터 정기총회

12월 14일(토) 오후 5시 굿월센터 2층에서 진행됩니다.

5. 굿월센터

- 유학생들을 위한 굿월센터 알뜰장터에 필요한 겨울용품 및 옷가지를 기부받습니다.
-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수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피아노를 기부 받고있습니다.
- DOJ사역을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예체능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주 1회 학기당 12회 수업.
- *문의:이흥기 목사(010-5494-1413)
- 도즈 전전화: 이번주간 교회 1층 로비에서 전시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초월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없는
 한 걸음도 뒤틀 수 없다.
 학문의 대상이 인간보다 크고,
 학문의 토대가 계시 뿐이며,
 학문의 본성이 수용적이고,
 연구자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 게르할더스 보스 -

[호12:5-6] 여호와와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를 언약 파기로 규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3-6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럼에도 돌아섬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굽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들려줍니다.

첫째, 아굽이 모태에서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사건(3절 상). 창 25:19~26의 사건이다. "아굽"의 뜻은 "움켜잡는 자"입니다. 이름이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속임수를 썼고, 그의 집념은 간교한 속임수로 이어져 장자권을 탈취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사건을 소환하여 "아굽"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기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의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둘째, 외삼촌 리반의 집에서 도망하여 이십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다 압복 강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거룬 사건(3절 하~4절 상; 창 32:22~32). 아굽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사투를 벌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호세아는 이 부분에서 아굽이 통곡하면서 은혜를 간구했다고 언급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처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아굽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겸손하게 변화된 것처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셋째, 아굽이 도망자가 되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벤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4절 하~6절; 창 28:10~17). 도망자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여 주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들에게 향하여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나요?

4절 하반절의 동사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벤엘에서 그분께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벤엘이 지금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벵아웬이 되었으나 원래 벤엘은 싸움꾼이었던 아굽이 울며 간청하자 여호와께서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에브라임이 배교했을지라도 울며 간청한다면 조상 아굽이 만났던 벤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호소입니다.

호세아는 아굽의 이야기에서 아굽의 속임수를 통해 이스라엘의 반역을 꼬집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조상 아굽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창 32:28),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아굽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며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여호와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여호와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5절). "만군의 여호와"는 모세가 호렘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3:15).

그러므로 아굽의 이야기는 출애굽과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서 호세아 시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로 전승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굽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었고,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구원의 이야기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절에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헤세드)와 정의(미쉬파트)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기다리라)"

설령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고 인애와 정의가 왜곡되는 현장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을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바람을 잡으려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눔] 호세아서에서 아굽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왜 바람을 잡으려 하는가? / 호세아 11:12-12:14]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